

인쇄골목, 문화 거점 골목 꿈꾼다



‘갤러리’와 ‘바’가 결합된 ‘0518’은 푸른색 벽면과 붉은 창문 등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광주 남동에 ‘갤러리아 0518’

아시아문화전당 옆
음료·미술 있는 곳에서
새 문화 만들어 가고파

개관 기념 임의진 ‘80일간의 세계 일주’ 사진전

5·18 주먹밥+부산 어묵 ‘동서화합’ 메뉴도 준비

광주시 동구 남동 인쇄골목 초입, 밤만 되면 어두컴컴해졌던 이 골목에 새로운 공간이 불을 밝혔다. 진한 붉은색 창문에 비치는 조명이 골목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다. 계단을 올라 2층 공간에 들어서자 아기자자한 공간이 나타났다. 진한 파란색 벽면, 테이블 밑을 밝혀주는 녹색 조명, 붉은색 창문과 출입구 등이 인상적이었다.

시민 자생 문화예술공간 메이홀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곳은 지난 6일 문을 연 ‘갤러리아 0518’. 고형곤(42)씨가 운영하는 ‘0518’은 간단한 음료와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 인테리어는 형인 조각가 고근호, 화가 주홍 부부가 했다.

최근 차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0518’은 ‘바(Bar)와 갤러리의 특징을 더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문을 열었다.

공간 곳곳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놓여 있다. 출입구 위에 걸린 조각가 주라영의 작품, 카운터 뒤편을 장식하고 있는 홍성담과 고근호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막 문을 연 ‘0518’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 ‘광주 5·18 주먹밥과 부산 어묵’은 고형곤씨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메뉴다. 동서화합의 메시지를 메뉴에 담았다.

‘0518’이라는 공간 이름은 5·18을 조금더 절제 해석하고, 바라보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인공의 소망이 담겼다.

고씨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

서 작품을 감상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특별한 공간이 아닌, 모두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벽면에는 전 세계의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30여 점이 걸려 있었다. 오는 5월31일까지 열리는 임의진 사진전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작품들이다.

몇 해전부터 메이홀 관광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다중예술가 임의진 목사가 그동안 지구촌을 돌며 찍었던 사진들을 선보인 것이다. 임 관장은 급격한 전환기를 겪고 있는 인쇄골목을 살펴보는 주인공의 취지에 공감해 그동안 찍었던 수만 장의 필름들을 한 컷 한 컷 골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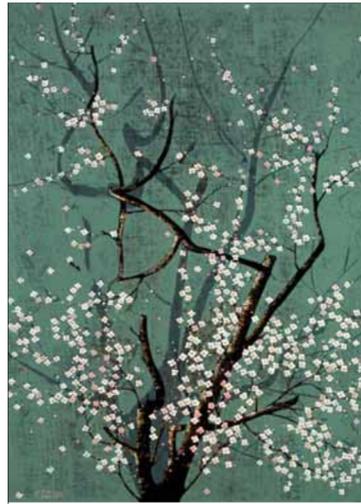
이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해 있고, 최근 2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손꼽히는 구시청 사거리와 직선으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인쇄업이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지 못하면서 활기를 잃어 버렸다. 이곳에 활기를 처음 불어넣은 공간이 메이홀이고, 그 다음이 ‘0518’인 셈이다.

임 관장의 작품에는 웅장하거나 거창한 풍경, 특별한 인물들이 담겨 있지 않다. 소소하게 흘러가는 풍경들이 익숙한 모습으로 담겼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여가수인 차벨라 바르가스, 인도 오 여인, 아마존 소녀, 사막 횡단 풍경, 은하수와 어우러진 몽골 유목민의 집, 케르, 쿠바 혁명광장, 티티카 호수 갈대섬 등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월드뮤직전문가인 임 관장은 세계 각국에 숨어 있는 음악을 찾아다니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임 관장은 “사진 작가의 시선이 아니라 여행자의 지나치는 시선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찍었다”며 “어디를 가더라도 혁명광장은 근엄한 분위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이는 문화의 출구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이 공간도 여행자들이 찾아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만개하여라’

붓보다 섬세한 칼

박구환, 4년만에 광주서 전시회... 갤러리리채 9~23일

판화가 박구환 작가의 작품은 나무판의 자연스러운 결, 날카로운 조각칼의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 남도의 정서가 담긴 따뜻한 색들이 만들어내는 교향곡이다. ‘그림’이라는 교향곡을 지휘하는 박 작가의 감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더해져 완벽한 연주가 완성된다.

갤러리리채는 남도 특유의 여유로움과 소소한 기쁨을 목판에 새기고 있는 박 작가를 초대해 9~23일 ‘공감(共感)전’을 연다. 박 작가가 광주에서 4년 만에 여는 개인전이다.

박 작가는 조각칼로 붓보다 더욱 세밀한 이미지들을 목판에 새기는 수고스럽고 더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낸다. 원하는 이미지와 색을 얻기 위해 표현하고 싶은 색의 수만큼 얇은 목판을 파고, 찍고, 또 파내는 목판화의 ‘소멸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작가는 원하는 수만큼 큰 찍어낸 원판은 그 안에 담긴 땀방울과 함께 소멸시킨다.

그는 3년 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판화기법을 활용한 유화 작업은 박 작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법이다. 기본 바탕은 목판을 조각칼로 파내 찍어내고, 조각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유화 물감을 덧칠해 완성한다. 일반 판화와 달리 오직 1점만을 만들어 낸다. 이 작업은 붓으로 표현하기 힘든 나무의 자연스러운 질감

과 조각칼의 부드럽고 날카로운 맛, 유화 작업의 장점만을 취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외 아트페어와 평론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감’을 주제로 ‘한가로운 마을’, ‘만개하여라’ 연작을 선보인다. 초기 나무와 그림자, 남도의 바다, 마을과 집, 들판과 사람 등 평범한 일상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왔던 작가는 7년 전 담양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작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 속 나무와 꽃 가까이 다다간 작가는 그제야 3자의 입장이 아닌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자연 속으로 들어간 작가의 시선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풍경들이 작품의 이미지로 표현됐다.

박 작가는 “나의 삶과 변화를 통해 얻어낸 공감들을 작품에 표현했다”며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림도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나 자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미술과를 나온 박 작가는 1991년 일본에서 판화를 접한 후 판화가로 전향했다. 뉴욕, 도쿄, 대만 등에서 차례 36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500여 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전시 개막식은 9일 오후 6시다. 문의 062-412-000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올제 클래식’ 시리즈 나와...산해경·박물지·춘추좌전

동서양 고전을 권당 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올제 클래식’ 14번째 시리즈는 ‘산해경’, ‘박물지’, ‘춘추좌전1·2’다.

산해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적 지리서이자 동식물도감으로, 동양 문화권 전설들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박물지는 소설 ‘홍당무’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쥘 르나르가 동식물을 관찰하며 쓴

산문집이다. 벼룩을 ‘용수철 장치가 있는 담뱃가루’로 묘사하는 등 기발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춘추좌전은 ‘사서오경’의 하나이자 공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역사서 ‘춘추’에 춘추 말기의 사화가 좌구명(左丘明)이 해설을 붙인 고전이다. 춘추 주석서인 ‘춘추삼전’(공양전·곡량전·좌전) 중 으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아마존 소녀’



‘사막 여행자’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 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